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8년도 표어 ◎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 (고후 5:17)

◎ 생활지침 ◎

1. 경건
2. 사랑
3. 절제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 ~ 5 팩스 (02) 512-1225

오늘은 어린이 주일

어린 아이 같은 신앙을 생각하는 날

부서별로는 헌신예배 · 주기도문 외우기 등 특별행사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교회에서는 이번 주와 다음 주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을 지킴과 가족찬양대회 등 가정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각종 풍성한 행사를 개척된다.

어린이 주일인 오늘, 교회에서는 작은 선물을 준비하여 예배 후 어린이들에게 전달한다.



또 I · II · III부 예배 시간에는 말씀을 통해 어린 아이 같은 신앙을 생각해 보는 기회도 갖는다. 한편 유아 · 유치 · 유년 · 초등부 등 각 부서에서는 어린이를 위한 특별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유아부에서는 '주기도문 외우기' 행사를 갖

는다. 유아부는 갓 태어난 아기에서부터 36개월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 대로 말씀과 기도를 가르치고 있다.

유치부에서는 교사들이 손수 준비한 선물을 아이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유년부에서는 오늘의 행사뿐 아니라 '어린이들을 궁극적으로 사랑하는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간 꾸준히 해 오고 있는 토요전도를 5월엔 더욱 힘써 할 계획이다.

초등부는 어린이들이 직접 예배의 각 순서를 담당하는 '어린이헌신예배'로 드린다. 이 헌신예배는 어린이회 회장 최재우 어린이가 예배 인도를 담당하며 부회장 김가진 어린이가 대표기도를 한다. 예배 후에는 달란트 잔

치와 임연주 · 고요한 · 박선영 세 어린이의 바이올린 협주 순서도 갖는다.

이들은 오늘 찬양예배시간에 온 교우 앞에서 연주 순서를 가질 예정이다.

사랑부는 이번 주 수요일(6일)부터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경공부를 시작한다. 이 성경공부는 매주 수요일 오후 4시 30분부터 별관 사랑부실에서 하게 된다.

5월 행사개시판

일자	행사
3일	어린이 주일
3일	중등부 헌신예배
매주 월요일	
제 13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강남YMCA)	
매주 월-목요일	
서울성경대학 및 음악교실 강좌	
6일 ~	사랑부 수요일성경공부 시작 (매주 수요일 오후 4시 30분)
10일	어버이 주일
24일	가족찬양대회(찬양예배 시)
27 - 28일	제 9차 킷치신학세미나
31일	공동의회(장로선출에 관한 건)
31일	새가족환영회(찬양예배 시)

감사와 존경의 마음 그릇에 담아...

청년부 식당 봉사로 '효' 실천키로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이다. 하나님께서는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하셨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서에는 이 말씀을 "각 사람이 자기에게 속한 여러가지 지위와 인륜관계 즉 상하 · 평등을 따라 높일 자를 높이고 행할 일을 행하라는 것이다"라고 풀어 설명하고 있다.

교회는 다음 주일 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부모님과 주위 어른들을 기쁘게 할 구체적 일들을 찾아 실천하게 된다.

특히 청년부 회원들이 어버이 주일인 다음 주일 하루만이라도 식당봉사를 통해 교회 어르신들께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표하겠다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청년부 회원들은 조를 짜서 식당의 배식이 시작되는 오전 10

시부터 끝나는 오후 3시까지 배식과 설거지 등을 도맡아 할 예정이다.

순례자 컬럼

시작하는 사람

시작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작하는 사람을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한다.

무슨 일을 시작하려면 우선 꿈과 이상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실현시키려는 강한 의지와 창조적 지혜와 힘이 있어야 하며 희생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남의 업적 뒤에서 안일주의나 타산주의에 빠져 새 것을 창조할 줄 모르는 이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지 모

르지만 남들이 하지 못하고 하지 않는 일은 만져보지도 못할 것이다.

시작하는 사람이 되어보고 싶다. 시작만 한 다 해서 모두 귀한 것은 아니다. 위대한 일을 시작하는 사람만이 위인이 되는 것이다. 아브라함처럼 수직적으로 종교성이 있고 공간적으로 공익성이 있으며 그리고 시간적으로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일을 시작해야 영광이 있을 것이다.

어린이주일 설교

한 어머니의 소망

마태복음 20장 20 - 28절

어린이 주일인 오늘 성경에 나타난 어머니의 자녀를 향한 소망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녀양육방법이 무엇인지 배우기를 원합니다.

살로메라는 여인은 자신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와 주님께 서 왕국을 창작하시게 되면 자기 아들들을 각각 좌우편에 앉혀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1.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22절)

살로메의 요청은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로서는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나 그것은 가족이기주의적 요구였습니다.

오늘날의 어머니들도 사랑하는 자녀들의 성공에만 관심을 쏟고 있지는 않은가요? 자식을 위해 무엇을 구해야 할 지 바로 알지 못하는 어른들로 인해 이 시대의 교육은 파행을 거듭하고 사회는 점점 어두워져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의 성공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 바른 신자가 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자녀의 미래가 주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나라, 몸 되신 교회와 관련이 없다면 헛된 것이 될 것이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받은 책망을 우리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 뜻대로 마음시키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바른 것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열려야 하겠습니다.

2. “나의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22절 하)

어떤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치려야 할 대가가 있습니다. 요행을 기대해서는 안되며 고난과 역경의 과정을 지나야만 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귀하게만 키울 것이 아니고 주님을 위해 고난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키워야 합니다(빌1:29).

주님께서 마시려는 잔은 모욕과 천대, 고통과 눈물, 오해와 멸시의 십자가였습니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하시는 주님의 물음은 우리의 자녀

를 위해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3.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이 예비한 자에게 주실 것이다”(23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기라사대 가서...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대답하시되 성을 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족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밀려 옮기워서 이 땅 가운데 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심본의 일이 오히려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는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베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같이 기록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사 6:8 - 13)



이종운 목사

복은 하나님께서 예비한 자, 지명한 자가 받아 누리게 됩니다. 노력과 인내, 열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인도하시야 길이 열이 풀리고 문이 열립니다(잠 16:9).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고 하셨으니 자녀를 진정 사랑한다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할 것이며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면 천대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기쁨으로 지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4. “큰 자가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려면 종이 되라”(26, 27절)

정상의 자리는 오르기도 어렵지만 그 자리를 지키기란 더욱 어려운 법입니다. 명예가 높아지면 외로워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오르더라도 질투와 시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먼저 수고하고 종이 되며, 희생하고 섬기라고 교훈하셨습니다.

주님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

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바른 가치관을 심어 주고 섬기고 희생하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만 합니다.

이웃과 형제를 가장 잘 섬기는 방법은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믿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주님을 닮아 이와 같은 하나님

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천국시민이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

이종운

주님

언약의 자손된 저들 위에
대지를 적시는 아슬 같이
맑고도 신성한 은총 펴사
새영을 날마다 부으소서

주님

천국의 자녀된 저들 위에
하늘을 나르는 독수리같이
희망과 권능의 은사 주사
광명의 새시대 맡기소서

주님

우리집 보배된 저들 위에
하늘별 바다모래 반짝이듯
평강왕 메시야 복 내리사
온세상 빛되게 하옵소서

1998년 어린이주일에

■지상강좌

“한국교회 각성운동의 방향”

이 글은 4월 20일 목회자신학세미나에서 이만열 교수(숙대,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의 강연중 결론 부분을 발췌 요약한 것이다.

한국 교회가 이래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특히 나라가 경제적 위기를 만나고 보니 바야흐로 한국 교회의 위기의식은 증폭되고 있다.

기독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위기는, 과거의 역사에서 보아왔듯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한국 교회의 각성운동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된다. 미국이 제 1, 2차 각성운동을 통해 교회의 영적 성장은 물론이고 국가적 토대를 마련하였듯이, 한국 교회의 각성운동은 교회의 병폐적인 모습을 개혁하고 교회가 몸담고 있는 한국 사회를 개혁하여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1. 영적 환원운동으로서의 각성운동

중세의 교회가 부패했을 때에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영국의 국교회와 그 지도를 받고 있던 사회가 타락하였을 때에 웨슬리의 개혁운동이 일어났으며, 미국 또한 그러한 영적 타락을 겪으며 깊은 좌절 속에 있을 때 요나단 에드워드가 출현하였다. 이러한 개혁운동으로서의 각성운동이 가진 공통점은 근원적인 전제가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과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목표를 갖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 운동은 영적 환원운동이라 할 수 있을 것이며, 각성운동이 어떤 목표나 지향점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초대교회라는 이상적인 교회상을 뚜렷한 목표로 갖고 있다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성경과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영적 환원운동이며 이 시대의 각성운동의 방법론적인 토대라 할 것이다.

2. 유일신신앙의 재무장으로서의 각성운동

과거 한국 기독교의 수용 단계에서는 유일신관이 바로 영적인 개안(開眼)의 시발이었다. 그 이후 한국 기독교회가 유일신관을 포기하거나 거기에 대한 신앙이 흔들려진 적은 없었다고 본다. 적어도 형식논리에서는 지금도 한국 교회의 유일신관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한국 교회는 기독교의 전제가 되는 유일신관 자체의 동요를 경험한 지 오래라고 할 것이며, 이러한 신관의 동요가 오늘날

의 각성운동을 필요로 하는 영적 침체에 도달케 되었다고 본다.

신관의 동요란 우선 20세기 후반에 급격하게 확산된 다원주의적인 요소에 의해 견잡을 수 없을 정도로 침투하고 있다. 다원주의에 의해 하나님은 그 '유일신됨'을 상실하고 다른 신과 상대화되고 있으며 기독교 또한 다른 여러 종교와 다를 바 없이 '하나의 종교'로 전락되고 말았다.

한국 교회의 기독교적 신관은 그들이 날마다 주장하는 것과 실제로 섬기고 있는 행위와의 사이에 괴리감으로 나타난다. 언제부터인지 한국 교회는 바알주의와 맘몬이즘(Mammonism)에 몰들어 버렸다. 교회마다 십자가를 걸어놓고 있지만 성육신하시고 인류의 죄악을 위해 희생하신 그 상징으로서의 십자가의 의미는 사라지고 부와 명예의 상징으로서의 의미가 더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 교회 각성운동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승배'의 대상으로 자리잡은 바로 이 바알과 맘몬을 쳐 부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3. 이원론적인 신앙행태의 극복운동

한국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이원론적인 신앙행태를 극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절박하며 바로 그것이 중요한 각성운동이다. 한국 기독교인들은 신앙과 생활이 분리되어 있어서 대체로 이중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즉 교회 안에서는 신자인데 교회 밖에서는 신자가 아니다. 한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한국 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인구수만큼 한국 사회를 기독교적인 문화와 윤리로 전환시키지 못하고 있는 주 원인은 바로 이러한 이원론적인 신앙행태 때문이다. 한국 교회의 각성운동은 바로 이러한 이원론적인 신앙행태를 극복하고 신앙과 행위, 이론과 실천을 겸비하는 신앙생활을 확립하는 데에 두어야 한다.

4. 기독교적 복(福) 사상의 확립

한국 교회는 복을 남발하고 있으며 신자들을 축복의 노예로 만들고 있다. 축복을 통해 전달되는 복이나 신앙생활을 통해 기원되는 그 복은 거의 세속적인 복과 구별되지 않으며 지극히 혼합주의적이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당신의 입으로 친히 8복을 말씀하셨

다. 거기서 가르치는 복은 결코 세속적인 것과는 비교될 수 없는 것들이다. 그리고 '주 예수님의 친히 말씀하신 바'의 복이 행 20:35절에 보이는데, 그것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것이다. 한국 교회는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강조해온 복과는 다른,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그 복을 강조하여야 한다.

5. 화해와 일치를 위한 각성운동

한국 교회가 갖는 갈등 구조나 우리 사회와 민족이 당면하고 있는 갈등구조도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몸소 보이신 화해와 일치

의 진리를 실천함으로써 해소될 수 있다. 오늘날 사분오열로 찢어진 한국 교회의 일치는 우리 교회의 각성운동의 중요한 목표요 지향점이다. 그것을 위해서는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며 용납할 줄 알아야 한다. 교회가 일치

의 방향으로 나아가 모범을 보여줄 수 있을 때, 한국 교회는 사회를 향해서 갈등구조를 풀고 화해를 예언자처럼 외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 외침이 실득력을 갖게 될 것이며, 민족을 향해서는 분단을 극복하고 서로를 용납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촉매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교회를 되돌아 볼 때, 교회는 종종 그 영적인 감각을 상실하여, 위기에 직면했던 때가 있었다. 하나님은 그 때마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 종들을 보내어 각성운동을 벌이게 했다. 각성운동을 이끌었던 지도자들의 수가 많은 것도 아니었다. 하나님은 그 적은 무리(눅 12:32)를 통하여 각성운동과 개혁운동을 이끌게 하시고 많은 호응자들을 주어 하나님의 교회가 갱신되도록 하였다.

이 시대에 한국 교회는 영적 각성운동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 이 각성운동에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참여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더 이상 영적인 감각을 상실하고 더 이상 부패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안된다. 우리는 깨어 있는 영력(靈力)으로 혹은 기도하는 무릎으로 이 각성운동에 앞장 설 수 있다. 그러나 다른 방법으로 이 각성운동에 참여할 수도 있다. 개혁운동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그랬듯이 각성운동을 지지하고 호응함으로써 이 운동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국 교회는 이러한 각성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먼저 목회자를 비롯한 지도자들의 회개운동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바울이 담대하게 외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것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는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인 한사람 한사람의 좌우명이 되어야 한다.

주일 저녁 찬양예배 때마다 구수한 남성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베들레헴찬양대가 25일(토) 모차람 가족 전체 산행모임을 가졌다.

100명에 가까운 가족이 청계산 국사봉을 향하여 움직이기 시작할 때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송이 울려 퍼졌다. 그날만은 남성들만의 찬양이 아닌 어린이의 목소리까지 합쳐진 온 가족의 화음이 어울려졌다.

머칠간 곳있던 날씨마저도 그날에는 화창하게 개어서 마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주는 듯했다.

산에서 내려와 아름다운 전원에서 다시 예배를 드렸다.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하신 이종윤 목사님의 메시지를 통해 그 자리에 모인 우리는 마음에 새로운 다

■은혜나누기 - 산행모임에 다녀와서■

베들레헴찬양대의 가족찬양

임훈규(집사, 베들레헴찬양대 지휘)

짐을 하고 소명감을 새롭게 가지게 되었다. 베들레헴 찬양대장 김대호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우리의 각오를 새롭게 해주었다.

부인들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나누는 후에 손을 잡고 모닥불 앞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는 찬양을 부르고 또 불렀다. 하나님의 숨결인 대자연 속에서 아름다운 형제의 교제를 나누고 우리에게 더욱 힘써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열망이 불타올랐다.



"호흡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시 150:6)하셨다. 바라기는 앞으로 사랑하는 서울 교회의 더 많은 남성도들이 우리 베들레헴찬양대에 오셔서 함께 힘있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다. 지금 곧 오시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기 위해!

◆ 각 부서 이모저모 ◆

◇ 스테반회=4일(월) - 5일(화) 1박 2일 간 경기도 가평 소재 광성교회훈련원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믿음의 일꾼"(딤후4:5)이라는 주제로 수련회를 갖는다. 출발은 4일(화) 오후 7시 30분 교회에서 한다.

◇ 청년부=5일(화) 수락산 등반대회를 갖는다. 교회에서 9시에 모여 함께 떠나게 된다.
-정처은-

아빠의 손과 눈과 가슴처럼

오선혜(대학부)

아빠의

따뜻한 두 손은 자비이고

그윽한 두 눈은 사랑이고

넓은 가슴은 주님을 품은 신앙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의 손으로 베풀기를 기뻐하며

나의 눈으로 사랑을 전하며

나의 가슴엔 주님을 모셨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그런 아빠의 두 손에

저는 매를 드시게 하였고

눈에선 눈물을 흘리시게 했으며

당신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동정

◆이종윤 목사는 4일(월)기독교교도소 추진위원회에 참석하며 6일(수) 총회주제위원회에 참석한다.

◇오늘 점심식사는 정동호·김정임 집사 가정에서 제공했다.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837KHz)	「심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K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아세아방송(HLAZ 1566KHz)	「라디오 강단」	주일 오전 8시 30분 ~ 9시
	「새벽의 강단」	금요일 오전 4시 20분 ~ 4시 50분

서울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5월에 있을 교회 행사들을 위해
2. 목회자신학세미나와 한국교회갱신을 위해
3. 서울성경대학교와 음악교실을 위해
4.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예배당 건축을 위해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

